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97년 제1차 학습, 세례식 2월 16일 저녁 찬양예배시간에 거행

2월 2일, 9일(주일)에 교육 및 문답
온교인의 축하와 격려속에 학습 및 세례 받게 돼

금년 들어 첫번째 학습, 세례식이 다가와 오는 2월 16일(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거행된다.

1997년부터 학습, 세례식 일정이 다소 바뀐에 따라 학습, 세례자는 물론 주위에서 권하는 교구일꾼 및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숙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동안은 학습, 세례식을 금요일 저녁에 갈릴리움에서 실시하고 이를 위한 문답과 교육을 목요일에 실시했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시간에 쫓기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각출석 등의 경우도 많았을 뿐더러 30분 정도의 교육에 이어서 문답을 해야 함으로 특히 앞시간에 실시하는 교육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금요일 세례식이 금요일집회 전이라 매우 바쁘게 진행이 되며, 현재 교육이 세례, 학습, 유아세례, 개종, 입교를 모두 같이 교육함으로 학습을 받는 사람이 6개월 후에 같은 교육을 받는 일이 있어 왔다.

이런 문제점들은 일찍이 지적되어 왔던 것으로 금년부터 개선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그 첫번째 실시가 2월 16일에 있게 된다.

교육 및 문답은 2주 전부터 2주간에 걸쳐 주일 오후 3시~4시 50분까지 실시되며, 좀더 내실 있는 교육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답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 내용도 세례자와 학습자에게 맞추어 세례반과 학습반을 분리하며 학습반은 기독교개요, 성경개요, 구원론, 성도의 생활을, 세례반은 세례란, 교회론, 구원론, 성도의 생활을 네 시간에 걸쳐 교육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을 성도는 반드시 강의를 듣고 확인표를 문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처럼 세례식을 금요일에서 주일로 바뀐에 따라 우선 세례반기 전에 다시 확인하고 알아야 할 사항들을 충분히 교육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가장 큰 행사의 하나인 세례식을 온 교인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축하와 격려 속에서 당회장의 집례 하에 실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교회의 회원으로 정식 입회하는 세례자에게나 이를 지켜보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에게 큰 의미와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금년도에는 네 차례(2월 16일, 5월 18일, 8월 17일, 11월 16일) 학습, 세례식을 갖게 되는데 이에 참여할 사람들은 미리

요일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2월 2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이국병 목사)	교육관 314호	세례란? (김필수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성경개요 (김재철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전형준 목사)	교육관 307호		
2월 9일 (주일)	1교시 15:00~15:50	구원론 (현상민 목사)	교육관 307호	구원론 (현상민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란? (김찬곤 목사)	교육관 309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2월 16일 (주일)	찬양예배			학습, 세례식(본당)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2월 16일 학습, 세례식에 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을 성도는 지난 주까지 신청을 마쳤고 오늘과 다음 주일에 교육 및 문답을 하고 2월 16일 주일에 학습, 세례식을 갖게 된다.

설날 연휴에도 금요일집회 실시

교회는 설날 연휴 기간에도 금요일집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명절 연휴와 하절기에 부분적으로 쉬었으나 기도하는 일에 힘이 있을 수 없기에 금년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예외없이 모이기로 했다.

2월의 주요 행사

- 2 / 3-5(월-수) 교역자 세미나
- 2 / 5(수) 정기 당회
- 2 / 16(주) 학습, 세례식
- 2 / 23(주) 성찬식
- 상반기 장학금 지급

금주의 위원회 청지기훈련

예배위원회 / 2월 2일(오늘) 오후 3시
본 당 - 현금위원
베다니홀 - 예배위원, 안내위원

97년도 제1기 출판국 기자 모집

총현교회 출판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간총현과 계간총현을 함께 꾸며나갈 헌신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열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모집부문: 사진기자 0명
취재기자 0명
- 자격: 총현교회 세례교인으로
대학부 이상의 모든 성도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교적번호 기재)
- 문의: 총현교회 출판국
(선교관 303호, 교한 516, 348번)



97 청지기훈련 이 지난 1월 29일, 30일 이틀간에 걸쳐 본당에서 실시되었다. 금년도 청지기훈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첫째는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소속 일꾼들을 대상으로 위원회에 맞는 직무와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전체의 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지난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친 청지기훈련은 전체 봉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인천제이교회 당회장인 이진영 목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청지기'와 '예배', '청지기의 사목적 관계'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봉사자들은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새가족부에서 새가족과 인도자에게 알립니다

97년부터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새가족들께서는 새가족부에 등록하시고 반드시 4주 이상의 새가족부 교육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역자의 입적심방이 있게 되고 이 심방을 받게 되면 총현교회의 정식 교인으로서 교적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교구의

심방이나 교인으로서의 특권과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새가족부에 등록하지 않은 새가족들은 새가족부에 등록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앞으로 새가족들을 인도하시는 성도들은 새가족들을 새가족부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

(시편 40:1-17)

다윗 왕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징계가 압살롬의 모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낙심하지 않고 그 누구도 저주하지도 않으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이 다 처치되고 다윗 왕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지은 시가 시편 40편입니다.

1. 구원받은 자의 감사

(1)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만나서 도망갈 때에 인생이 밤을 만난 것처럼 앞이 안 보이고 태산이 앞을 가로막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르고 조급하여 실수하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성도의 덕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성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저주하며 반역까지 도모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열흘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기다릴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런 죄를 범했습니까? 기다리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추측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기다리지 못하고 추측하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책임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며 일해야 됩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만 해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2) 기도의 응답을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도망가는 곳은 수렁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수렁은 밟으면 밟을수록 깊이 빠지는 곳입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혼자 힘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다윗 왕을 수렁에서 권좌에서 반석 위에 세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실패하여 근심의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에 병이 들어서 시름의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을 수렁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수렁에서 건지움을 받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 궁궐로 돌아와 보좌에 다시 앉고 보니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제 소망의 앞길이 환하게 열립니다. 인생은 내일의 길도 알지 못하는 나그네인데 하나님이 앞길을 환하게 열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이와 같이 응답받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 감사의 방법

(1) 찬송으로 감사합니다

다윗 왕은 거룩한 노래, 영혼이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 원수가 들으면 벌벌 떨고 도망가는 노래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신자가 찬송을 부르면 찬송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제물로 받아 주셔야 합니다. 둘째는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야 하며 자기 자신도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셋째는 찬송을 듣고 마귀가 도망가야 됩니다. 넷째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전도가 되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야 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다윗이 궁궐에 돌아와 부르는 찬송은 인간의 생각은 아무 것도 섞이지 않은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만 부르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 깨끗한 노래, 생명을 다 바쳐 부르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자기가 부르고 싶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부르는 것이며 천국에서도 영원히 부를 찬송입니다.

(2) 간증으로 감사합니다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간증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첫째, 교만한 자와 타협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권세가 강하다고 해서 의인을 죽이려는 악한 사람과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다윗 왕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압살롬에게 가담한 사람들은 결국 불행한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고 사람 앞에는 신음을 지키는 자는 이와 같은 기적을 봅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번에 살아온 것이 기적일 줄을 모르느냐. 애굽에서 열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라." 다윗은 이와 같이 백성들 앞에 간증하며 하나님

인간적으로 깊은 절망의 자리에 떨어졌어도 사람에게 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께 감사합니다.

(3)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합니다

두루마리 책이란 옛날의 성경책을 말합니다. 다윗 왕은 그 책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체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겠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의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4) 전도로 감사합니다

전도를 바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었으니 혼자서만 순종하는 생활을 살아 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은 전도에 대해 다섯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임을 전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전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전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전합니다.

3. 구원받은 자의 간구

다윗 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악한 무리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 있는 악한 무리를 유혹해서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아직도 악한 뿌리가 이곳저곳 남아 있는 것을 보며 다윗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받은 징계로는 그 죄값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수가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게 갚아야 할 죄값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게 남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내게 죄가 남아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육신보다 영혼과 인격을 먼저 살려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악마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내 육신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 믿사오니 한 번 더 체험하게 하옵소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기거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되면 유혹에 빠집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서 떠나가시면 유혹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깊은 절망의 자리에 떨어졌어도 사람에게 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장군이 된 후에 역적으로 몰려 도망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임금으로 세워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일이 안될 때라도 아주 안될 것으로 추측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 왕에게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자와 여러분에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는 어느 곳에서 사해를 당할는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 품에 안기워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을 받는 여러분에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 설날을 맞으며 ●



그리스도인의 설날 보내기

한 군수

(목사, 16교구, 출판국 지도)

우리 한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구정)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본래 설날은 과거의 묵은 때를 벗어 버리고 새해의 첫날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요즘의 설날은 그 의미가 많이 달라졌다. 이미 한 해가 시작되어 한달여가 지난 터에 굳이 구정을 새해 첫날의 시작으로 삼아 마음을 새롭게 다지거나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음력보다는 양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익숙해진 마당에 이같은 의미를 고집하는 것은 도리어 어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의미의 퇴색이 단순한 음력과 양력의 차이로만 돌려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 산업사회로 인한 이농현상 및 도시의 인구 집중화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공부나 직장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거나, 또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들의 분가는 필연적으로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들간에 이별을 가져왔으며, 이같은 시대 요청이 거의 모든 사람들을 고향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구정은 한해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찾기보다는 흩어진 가족들의 만남이라는 의미가 더 설득력을 갖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민족은 대이동을 시작한다. 너나 할 것없이 부모형제를 찾아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에 헤어졌던 고향의 부모 형제를 만나는 일은 대단히 기분 좋은 일이다. 그래서 구정은

만남의 날이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날을 어떻게 보내야 좋을 것인가? 아직도 예전의 구습에 젖어서 제사와 음주와 도박으로 설을 보내고 있는 대다수의 전통적 인습 앞에서 특히 제사문제, 제사음식, 성묘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

첫째는 제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일이다. 우리는 제사가 귀신에게 하는 짓임을 잘 알고 있다. 비록 이단 중에는 조상들의 죽은 영혼이 아직도 구원을 떠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제사 자체를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전 10:20). 따라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함께 모여서 이미 가신 어른들의 덕과 그 뜻을 기리되,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와 앞으로의 참된 결단을 보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죽은 자들이나 조상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우를 범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흩어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간의 정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일 것이다.

둘째는 제사음식에 관한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로 들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었다. 만일 누군가가 제사음식을 가져왔다면, 그것이 제사음식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 부러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한다(고전 10:27). 이같은 배경에는 음식을 먹는 일조차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이 깃들여 있다(롬 14:23). 하지만 그 음식이 제사음식임이 분명하거나 가져온 사람이 그것을 말했을 경우에는 서로를 위하여 절대로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전 10:28). 이는 양심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며, 귀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귀신과의 교제를 허락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고전 10:21). 따라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적인 자유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는 음식을 먹는 일에도 덕을 세우며 양심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성묘시 주의해야 할 점이다. 불신자들은 상을 차려놓고 산소에 술을

부으면서 그 앞에 절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어떤 분들은 제사와 달리 산소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산소 앞에 절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죽은 육체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산소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들의 뜻을 기릴 수는 있으나, 영혼없는 몸이 흠으로 돌아간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가장 좋은 자세는 부모의 산소 앞에서 그분들이 남기고 가신 교훈과 가르침들을 되새기면서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또한 하

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람들의 궁극적인 결말이 흠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깨우쳐 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마지막은 도박과 주초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명절의 의식은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함께 공동 제성을 회복하는 것에 그 중심이 있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 은밀하게 성행하던 도박이 요즘은 매우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도박과 주초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신앙과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모처럼의 민족 명절을 맞아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는 일, 적절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찾는 일은 가정의 어른들이 담당해 주어야 할 몫일 것이다.

이번 설날은 주일을 포함하여 지나고 있다. 따라서 충헌의 모든 성도들은 지혜로운 절제를 통해서 주일성수에 흠이 없게 설날을 보내야 할 것이며, 이같은 신앙자세를 통해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각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997년 경찰전도회 활성화

경찰전도회 새롭게 출발

관심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

오는 2월 16일(주일) 오후 3시 칼빈홀에서 첫모임

전도위원회 산하의 직능전도부에는 군, 실업인, 교정, 학원, 의료, 메스컴, 문서, 경찰전도회가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전도회는 조직상에만 있었고 별로 이렇다 할 활동을 보여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전도위원회에서는 경찰전도회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회장에 이갑재 장로, 지도에 김희수 목사를 임명하고 각 부서 조직과 임원들을 선임하여 창립하는 자세로 2월 16일(주일) 오후 3시 칼빈홀에서 첫 모임을 갖는다.

경찰전도는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 산하의 각 지방 경찰청, 경찰서, 기동대에 소속된 경찰관, 전경, 의경 등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이다. 물론 1966년에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경무제도를 주창, 신설된 후 지금까지 264개처에 1,700여명의 경목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전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각 교회가 경목들을 지원하고 경찰교회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경찰전도회에서는 앞으로 경찰교회 지원, 일선 경찰 전도, 특수 부대 전도, 기념 절기 및 기념일 때 본교회 목사 파송예배, 유치인 교회, 우범 청소년 전도, 국립경찰병원 전도, 일반직 직원 전도 등 경찰과 관련된 모든 분야와 사람에게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찰전도회에서는 성도들이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도로 물질을 경찰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차량 도우미를 찾습니다

작년 1월에 당뇨병으로 두 다리를 절단한 자매가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합니다. 교회에 데려 오고 데려다 드리는 일을 해주실 성도님을 찾습니다. 자매님 주소는 은평구 구산동 구산연립 15-02입니다.

택아 봉사자를 찾습니다

에바다부에서 신앙생활하는 농아인 부부가 아들 쌍둥이를 순산하였습니다. 아이를 돌보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엄마가 아이들을 혼자 양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망우리 쪽에 생활하시는 데 각 여전도회나 개인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이준우 강도사
(사랑부, 에바다부 지도)
평일-교한 342번
주일-교한 416번, 420번

각종 테이프 판매, 통신 판매도 가능

교회에서는 주중 테이프를 판매하고 있다. 특히 주중을 이루는 것은 찬양집으로 남성중창단, 96년 메시아 공연 실황, 각 찬양대의 찬양 모음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또한 일과시간에만 판매하던 것을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들르는 수요일 2부예배 후 30분간과 금요일에도 금요집회 시작 전까지(오후 7시 50분) 판매한다.

또한 원하는 사람에게는 우편으로도 판매한다. 각 테이프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 남성중창단 CD 10,000원
- 충헌찬양모음 1,000원
- 메시아공연 실황 비디오 5,000원
- 카세트 1,000원
- 각 찬양대 모음집 1,000원
- (임마누엘, 할렐루야, 실로암, 핸드벨)

토막소식

▶ 청년1부는 1997년 들어 새롭게 양육훈련을 시작한다. 지난 1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교육관 5, 6, 7층에서 양육훈련을 개강한다. 양육훈련은 총 7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금년에는 5단계까지만 개설된다.

양육훈련은 한 학기가 10주로 일년에 3학기 강좌를 열게 된다. 1997년 1기에는 총 160여명의 회원이 신청하여 9개 과정에 15개 반으로 편성되었다.

강사는 청년1부 교사와 훈련된 인도자들이다.

▶ 청년2부는 금년부터 집회실을 교육관 414호에서 514호로 옮겼다. 또한 그동안 지도 목사의 성경강해 중심에서 성경강해 및 조별 성경공부로 바꾸어 진행하고 있다.

▶ 새가족부에서는 오는 2월 13일(목) 오후 7시 충현기도원에서 실, 처, 과장기도회를 갖는다.

▶ 직능전도부에서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선교관 405호에서 회장단 월례회를 갖는다.

중등1부 수련회를 마치고

김 신 영(중등1부 회원)

버스를 타고 충현기도원에 처음 와서 했던 이 수련회는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첫날 '우리는 하나'라는 프로그램에서 단체 훈련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

또 '나도 돕는 선교사'란 프로그램에서는 세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또 우리나라 돈 30원이면 비타민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 나라는 비타민이 모자라서 죽는다고도 한다. 이제부터는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산상기도회'에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다. 우리 가족을 위해, 선생님을 위해, 친구를 위해 기도를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하나님께 회개를 해서 여태까지 있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 정말 기뻐다. '변하여 새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를 갖고 한 이번 수련회는 정말 좋았고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충현복지관 훈련생 모집

1. 정신지체인 직업훈련생 모집

- 모집대상: 정신지체 3급으로 만 18세에서 35세의 성인 정신지체인
- 모집분야: 직업전훈련반 2개반 24명(선착순 마감)
- 서비스 기간: 최저 2년에서 최고 5년까지

2. 집단지도 프로그램(집중다리교실) 대상자 모집

- 모집대상: 학교나 그밖의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 18세에서 35세의 성인 정신지체인
- 모집기간: 1997. 2. 1 - 28
- 서비스 기간: 주 2회씩 1년간
- 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훈련, 보호작업훈련 등

3. 자원봉사자 모집

- 모집대상: 만 18세 이상으로 주 1회,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 활동분야: 작업훈련실 작업보조, 학습지도, 미술·체육·음악 등 취미교실 지도, 사회적응훈련지도, 집단지도, 재가방문지도, 사무보조 등

전화문의: 충현복지관 564-4885, 562-054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수단 김영대 선교사



에스라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말씀 공부에 주력

한 국을 떠난 지 2년 1개월이 되었습니다. 원로목사님 내외분을 비롯하여 온 교우들의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 계속 수단 교우들의 말씀 교육과 전도의 비전을 일깨우며 더불어 모슬렘 영혼 구원 사역에 접근하여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위원회의 집중된 기도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수단 정세

현재 카르툼은 전쟁의 소문으로 인해 뒤숭숭합니다. TV방송에서는 '알리아크바르, 무함마드 라슬 알라'(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마호메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외치며 '지하드'(성전: 거룩한 전투: 싸우다 죽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부에서만 전투하게 밀고 밀리던 전쟁이 저번 달에 '싸디칼 마디'(수단을 독립시켰던 회교지도자의 전사의 후손으로 수단 정부의 혁명전 최고 수반이었던 사람이 70여명을 수행하고 에리트리아로 탈출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에집트와 양국을 방문하고 수단 남부 제달라 지도자 '존카랑'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동쪽 국경 에디오피아 접경 지역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군들이 '다마진담'을 점령하려고 점차 진군하고 있는데 정부군이 점점 밀리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대학교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차출하여 전선으로 보내고 외곽 지역 난민촌에서 청년들을 장제로 군대에 입대시키고 있습니다. 훈련이 안된 이들은 총알받이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배자 위해 준비 중

카르툼대학 무선 하얏에 과정에 다시 등록하려 합니다. 금년 5월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아랍

어 과정 책임자가 남부에서 올라온 '실룩부족 교회' 장로님이어서 많은 편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현장

1. 에스라아카데미 프로그램 진행

에스라 7장 10절의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성경 66권을 '배우고! 실천하고! 전하자!'라는 주제 성구를 중심으로 에스라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비전을 심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들도 이 말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성경공부 교재들의 장점을 동원, 교육 훈련하려 합니다.

(1) TEE(신학연장교육과정)

'96년에 산발적으로 하던 3년과정으로 교육하던 과목들 '성경개론, 마가복음, 에베소서, 사도행전, 수단 교회사, 아프리카 영적 유산, 창세기-출애굽기, 기독교 신앙, 구원의 길'(이상 9과목: 신학연장교육 프로그램 / TEE)을 1년 집중 과정을 편성하여 좋은 일꾼들이 인정되게 공부에 열과를 올렸습니다. 이 과정은 두 그룹이 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이 주일 아침 8:30-12:30에 진행하고, 다른 그룹은 화요일 오후 2:30-5:30에 만나고 있습니다.

(2) Through the Bible

(66 성경공부과정) 목회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돕는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96년도에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후서'를 격주로 월요일 오후 2:30-5:30에 프로그램을 한국농장에서 진행해 왔는데 금년 들어 안보상 문제로 '카르툼 이반젤리칼 처치(카르툼복음 교회당)'에서 목요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인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간을 조정하여 1년 과정으로 성경 66권의 배경과 핵심구절과 교훈들을 계속 교육하려 합니다. 중간에 특별한 휴일이 있는데 집중 강의식도 도입하려고 의논 중입니다. 영어로 된 교재를 다음주부터는 아랍어 교육안을 컴퓨터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무덤목사님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 영혼 구원

개종자 3가정과 교제를 해오고 있는데 두 가정 부인들이 임신을 했습니다.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여호와와 중언을 통하여 성경을 받고 교회에 참석하던 중에 가정 식구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피신 중인 형제를 만나 현재 개종하여 변조 사업을 하고 있는 '무함마드 살리' 형제집으로 옮겨 보호하며 주일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50여명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가지면서 개종자 중 7년 이상 신앙을 유지해 온 두 명을 저번에 케메리아에 동행하였던 나지 코나지 목사님을 초청하여 집사로 임명하였고, 두 명을 세례 주었습니다. 모두 주일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3. 유치원 교사 교육

난민 지역에 교회를 중심으로 유치원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자료가 없고 교사들 자원이 없습니다. 두 교회를 선정하여 여자 교사 3명을 매주일 오게 하여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간단한 교안을 주고 그 내용에 따라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자료를 함께 만들어 일주일의 분량을 주고 있습니다. 박영애 선교사와 한국에서 평신도선교사로 온 송화경 집사(여)와 함께 세웠습니다.

4. 기타 지원 사업

수단 한인교회에 의뢰하여 지난 연말 추수가 있을 때 난민촌에 밀가루 등 음식물들을 지원하고 교회 무너진 담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나일신학교 신학생 2명을 지원하고 있고, 난민촌에 진료소 2군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앞으로 할 일들

(1) 수단의 항구도시인 '포트 수단'에서 목회자의 평신도 지도자 28명을 조직하여 TEE공부를 의뢰해 왔습니다. 교제는 이미 보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지원을 의뢰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산 항구같은 곳으로 수단 제2의 도시입니다. 거리가 카르툼에서 고속버스로 17시간 걸립니다.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2) 여러 그룹들이 함께 모여 복음전도사역회(Gospel Outreach Ministry)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전략을 논의하고 성경 교사 및 교회 지도자를 발굴 훈련하여 각 도시마다 교육센터를 두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TEE(신학연장교육)과 Bible Through(성경66권공부)를 확산시키려 합니다.

(3) 카르툼에 작은 도서관과 독서실을 마련하여 수단 교역자들이 와서 공부하게 하고 집속점을 마련하여 그들을 통하여 각 교회의 성도들을 교육적으로 도우려 합니다.

기도제목

1. 우리들이 돕고 있는 수단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의 생활은 정말 어렵습니다. 문화생활은 상상도 못하며 먹을 것과 버스 차비가 없어서 모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들의 육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간구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 수단 정세가 늘 예수신앙에 은혜, 영화 교육의 안정을 위해 이웃나라 선교사 자녀를 위한 기숙사 학교의 소식을 듣고 압박 의뢰를 해 놓았는데 많은 자녀들이 있어 순위가 하락을 받으려면 20번째가 된다고 합니다.

3. 수단에 전쟁과 혁명의 소문들이 너무 예수신앙에 일어나는데 마음을 안정시켜 화내고 설령 충만하여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며 주변의 한국 단기 선교사들과 성도들에게 지도자로서의 본이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수단 김 영 대 선교사 가족 올림